

감리회규정 10개 이단단체
이단 대책 매뉴얼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교국

‘감리회 규정 10개 이단단체 대책 매뉴얼’은 그들의 주장을 분석하며 감리회의 정통적 교리에 입각해 분석하고 대책을 세우는데 그 목적을 둔다. 특히 그 분석과 해석을 정확히 하고자 조직신학적 주제를 따라 분석하고 해석하였다. 이단들의 공격적 질문과 미혹하기 위한 괴변들에 대해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먼저는 감리회의 정통교리에 준한 분석과 해석이 필요하며 여기에 성경의 명확한 증거 제시로 정리되어야 성경에 근거한 정통적 구원관에 대한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단에 대한 분명한 대응과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감리회 규정 10개 이단단체 대책 매뉴얼’은 다음 몇 가지의 규칙을 두고 있다.

첫째, 조직신학의 기본 구조

조직신학의 기본 주제들은 일곱가지로 이루어져있다. ① 계시론과 성경론, ② 하나님론, ③ 인간론, ④ 그리스도론, ⑤ 구원론, ⑥ 교회론, ⑦ 종말론이다. 감리회의 정통 교리와 신앙고백은 이 모든 주제들을 갖추고 있으며 이단들의 자칭 교리들은 이러한 구조에서 일부만을 주장하거나 왜곡하여 사람들을 미혹하여 이단사상에 빠지게 한다.

둘째, 각 이단단체들의 포섭전략 구조

각 이단단체들의 핵심은 그들만의 교리서에 있다. 같은 성경을 갖고도 성경을 보는 관점과 해석을 달리하므로 만들어진 이단들의 교리서는 그들 나름대로의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각 이단교리서들의 구조를 파악하여 각 항목을 조직신학의 주제에 비추어 왜곡된 부분을 분석하였다.

셋째, 정통교리에 입각한 성경 해석

이단들의 성경왜곡은 자칫 기존의 성도들이 알고 있던 성경의 내용을 오해하게 하는 독소가 되어버린다. 이를 위해 그릇된 성경해석에 관하여 문맥에 따른 성경 해석, 구원관에 입각한 성경의 근거를 제시하여 왜곡된 부분을 바로 정리하였다. 왜곡된 성경의 반증은 올바른 성경의 해석으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좋다.

감리회의 정통적 교리 정립으로 이단의 미혹을 분별하며 인류의 구원을 위해 성경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신 하나님의 그 뜻과 사랑이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차례

머리말 02

chapter 1

조직신학의 핵심주제들

05

chapter 2

감리회 규정 10개 이단단체 교리분석

09

1.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10
2. 구원파 (기쁜소식선교회, 생명의 말씀선교회, 기독교복음침례회) 13
3.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안상홍 증인회) 16
4. 기독교 복음선교회 (정명석=JMS) 19
5. 여호와와의 증인 22
6. 제칠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안식교) 25
7. 하늘부모님교단 (통일교) 29
8. 예수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몰몬교) 32
9.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다락방) 35
10.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 (전능신교=동방번개파) 38

chapter 1

조직신학의 핵심주제들

—
조직신학의 핵심주제들은
크게 일곱가지로 구성된다.

1. 계시론과 성경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 전체는 일반계시와 특별계시로 나뉜다. 일반계시는 자연과 역사 및 인간 내면의 이성과 도덕률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양한 방식과 정도로 자신을 피조세계 전체의 창조주요 섭리주로서 알려주시며, 인간에게 하나님에 대한 최소한의 인식을 갖고 도덕적으로 살 것을 요구하시는 계시이다.¹ 그러나 일반계시만 가지고는 인간의 구원은 가능하지 않다. 특별계시는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자로서 계시하시되, 자신의 말씀과 행동을 통하여 자신을 구원자요 심판주로서 나타내시는 계시이다. 이 계시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하여 필요충분하고 신뢰할 수 있게 기록된 것이 구약성경 39권과 신약성경 27권이다. 이 66권의 성경 이외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특별계시를 담고 있는 여하한 매체가 없다.

2. 하나님론

하나님론은 하나님의 인격(the Person of God)에 관한 교리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the Work of God)에 관한 교리로 구성된다. 전자의 핵심교리는 삼위일체교리이고, 후자의 핵심교리는 예정론, 창조론, 섭리론이다. 감리교의 “종교강령 25개 조항”의 제1조는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조의 삼위일체 교리를 정통교리로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는 각각의 인격으로서 독립된 각 인격들로서 피조세계를 향하여 상호관계 안에서 일하시나, 피조물과는 달리 부분들로 나뉘지 않는 신성에 있어서는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이다.

3. 인간론

인간론은 인간의 정체성에 관한 교리와 인간의 행위에 관한 교리로 구성되어 있다. 전자는 ‘하나님의 형상’ 교리이고, 후자는 ‘원죄론’을 중심으로 하는 죄에 관한 교리이다.

웨슬리에 의하면, 영이 곧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은 영(Spirit)이신즉 인간도 이것을 따라서 영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고, 이 영이 인간의 본질

적 자이라는 뜻이다.²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지(understanding), 의(will), 정(affections)을 가지셨기 때문에, 인간의 영도 지, 의, 정이라는 기능을 가졌다. 또한 종교개혁 제7조에 의하면, “원죄는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이 헛되이 말하는 것처럼) 아담을 따라가는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각 인간의 본질이 부패한 것으로서, 이 부패에 의하여 인간은 원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요, 그 자신의 본질에 의하여 악으로 기울어져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원죄라는 것은 인간의 영혼이 모태에서부터 전적부패와 전적무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4. 그리스도론

그리스도론은 그리스도의 인격에 관한 교리와 그리스도의 행위에 관한 교리로 구성되어 있다. 전자의 핵심은 양성론(칼케돈 신조)³이고, 후자의 핵심교리는 속죄론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론’은 예수의 신성과 인성에 관한 것과 함께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죄사함으로 온전한 속죄물이 되어주신 것을 나타낸다.

5. 구원론

정통적 기독교의 구원사상은 ‘이신칭의, 중생, 성화, 영화’를 핵심으로 하는 구원관을 말하며 웨슬리는 구원의 순서를 크게 선행은혜, 회개은혜, 칭의은혜, 성화은혜(그리스도인의 완전), 영화로 나타냈다. 구원의 절대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며 이 믿음은 인간의 생산물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다. 구원을 이룸에 있어 인간의 행위는 마땅히 구할 바가 되지만 이 행위 자체가 모종의 능력(power)이나 일종의 공로(merit)가 될 수는 없다.⁴

6. 교회론

교회론은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하는 일에 관한 것이다. 교회의 본질은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나누이고 교회의 하는 일은 성례전과 교회의 제도에 관한 것이다.

7. 종말론

성경의 종말에 관하여는 개인적 종말론과 우주적 종말론으로 나뉜다. 개인적 종말론은 육과 영이 분리되는 시점인 죽음을 말하고 우주적 종말론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마지막 심판이 주어지므로 영생과 영벌이 주어지는 시점을 말한다. 믿는 자의 경우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부활된 몸을 입고 영생에 들어가며 믿지 않는 자는 영벌에 있게 된다.

- 1 | 롬 1:19-20.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20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찌니라.
- 2 | John Wesley, Sermon "What is the Man?", 1788", 10, "그러면 나는 무엇인가? ... 나는 나의 몸과 구별된 무엇이다. ... 나의 몸이 죽을 때 나는 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 이 스스로 움직이는 사고하는 원리는 그의 모든 정욕들과 정서들을 다 가지고 계속 존재할 것임을 나는 믿지 않을 수가 없다."
- 3 | 칼케돈 공의회(Council of Chalcedon, 451.10.8~11.1) :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은 분리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칼케돈 신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요, 완전한 하느님이라고 고백하였는데 이는 예수의 '양성론'으로 예수의 신성과 인성이 분리될 수 없다는 정통교리이다.
- 4 | John Wesley, Sermon "The Means of Grace, 1746", II.1~8, in The Bicentennial Edition of The Work of John Wesley (Nashville: Abingdon Press, 1984), 381-384.

chapter 1

감리회 규정
10개 이단단체
교리분석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신천지)

주요교리 신천지는 먼저 성경을 보는 방법에 대해 가르친다. 즉 성경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닌 반드시 성경 각각의 짝을 맞추어 읽어야 한다는 짝교리와 성경의 각 단어는 비유이므로 비유풀이 방식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여기에 구원의 노정이 있어 배도-멸망-구원이라는 순서로 이루어졌고 이만희가 배도와 멸망의 사건을 본 증인으로 그것이 이뤄진 계시록의 실상이 신천지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육체영생을 주장하며 신천지 외의 모든 교회는 사단이 주장하는 바벨론이라 한다. 이러한 신천지의 교리는 이들이 계시론과 성경론, 그리스도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등에 모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1. 계시론과 성경론(짝교리와 비유풀이)

하나님의 계시는 자연만물을 통한 일반계시와 성경을 통한 구원을 이루는 특별계시로 나타난다. 신천지는 이러한 계시의 성경을 보는 것에 있어 관점을 왜곡되게 한다. 성경 자체로는 완전한 해석이 안되어 짝을 맞추어 읽어야 한다는 ‘짝교리’(사 34:16)와 모든 성경은 비유로 풀이된다는 ‘비유풀이’(마 13:34~35)를 주장한다. 짝교리의 허구는 이들이 인용한 사 34:16의 예시가 ‘말씀의 짝’이 아닌 ‘동물의 암수 짝’에 있다. 말씀은 이미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다. 비유풀이 역시 성경 모두를 비유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관한 예시로 단지 그 부분을 비유로 하신 말씀이다. 예수님의 말씀하심은 비유적 예시와 함께 사실적 서술(마 8:5~13)도 있다.

2. 구원론(배도-멸망-구원, 이기는 자, 이긴 자)

신천지는 구원의 노정이 배도-멸망-구원이라는 순서로 되어 있어 각 시대마다 구원자가 있다는 '시대별 구원자'를 주장한다. 그래서 아브라함, 모세, 세례 요한 등을 모두 배도자(멸망당한 자)라 하지만 성경의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다. 세례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선지자보다 나으며(마 11:9) 그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하셨다(눅 11:11). 아브라함(출 3:15), 모세(마 17:3), 세례요한(마 11:7-9) 등은 모두 멸망치 않고 구원된 이들이다.

또한 신천지의 구원에는 '이긴 자'와의 만남을 조건으로 한다. '이긴 자' 주장은 제2~3장을 인용한 것으로 '이긴 자'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다는 것이다. 자신들의 교주가 '이긴 자'라는 것이다. 하지만 제2~3장은 '이긴 자'라 하지 않고 '이기는 자'를 말하며 이는 특정한 한 사람이 아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으로서 '성도'를 말하는데 현재 진행형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는 자가 된다(요일 5:5). 그래서 성경의 '이긴 자'와 '이기는 자'는 전혀 다른 표현이다. 실제 '이긴 자'는 이미 이기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요 16:33)

3. 그리스도론(초림시대 목자)

'신천지예수교'라는 용어를 사용하듯이 이들은 예수를 믿고 부정하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저 초림시대 약속의 목자로 믿을 뿐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양성론과 속죄론 모두를 부정하는 것이다. 성경의 예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으로(요 1:18), 하나님과 동등하시며(빌 2:6),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요 14:6) 또한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 되신다.(롬 9:5)

4. 성령론

신천지는 요14:16의 '또 다른 보혜사'(=성령)라는 말을 인용하여 '오순절 성령'과 '진리의 성령', 곧 마지막 계시록 시대에 약속의 목자에게 임할 성령은 다른 것이라 주장한다. '이전 보혜사'라 하여 그 자리에 교주를 대입하는 이단설

이다. 하지만 성경의 보혜사, 진리의 영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며(요 14:16)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다.(행 2:1~4).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은 한 분이시다.(행 2:33) 보혜사로 번역된 파라클레토스(παράκλητος)¹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도록 곁에 부름 받은 자’로 ‘변호사, 조력자, 위로자, 상담자, 친구’를 뜻한다. 또한 이 단어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를 변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로도 쓰였다.^{2,3} 그러므로 ‘보혜사’라는 말은 예수님과 성령님 모두에게 사용될 수 있는 표현으로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게 하는 사역을 담고 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언급하실 때에 ‘또 다른 보혜사’(another Counselor)로⁴ 말씀하신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이다.

5. 종말론(신인합일, 소계시록)

신천지의 부활은 하늘의 순교자 영 144,000명과 신천지의 택함 받은 144,000명의 육체가 합하는 ‘신인합일’이 되어 온 세계를 치리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성경의 부활에는 ‘신인합일’이 전혀 없다. 부활 때는 결혼하지 않고(마 22:30) 다시 죽지 않으며 천사와 동등하게 된다(눅 20:36). 영화로운 몸으로서 주님이 예시가 된다(고전 15:20). 또한 신천지는 마24장을 ‘주 재림과 말세의 징조’인 소계시록으로 보며 이것으로 계12장과 함께 계시록 전체를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마24장은 로마로 인한 예루살렘 멸망(AD70년)에 관한 이루어진 예언이다. 그리고 계12장의 전쟁은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내용이다.

1 | 3875. παράκλητος[Paraklētōs] 파라클레토스. 남을 위해 나타난 자, 증제자, 조정자, 돕는 자, 변호자, 위로자, 중보자. 1)[그리스도를 가리켜서]요일2:1. 2)[성령을 가리켜서]요14:16,26; 15:26; 16:7. ‘히브리어·헬리어 사전’-(서울: 로고스, 1998), 935.

2 | 하용조, 『간추린 비전성경사전』,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2002), 241.

3 | 요일 2:1.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씌은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Παράκλητον)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Τεκνία μου ταῦτα γράφω ὑμῖν ἵνα μὴ ἁμάρτητε καὶ ἐάν τις ἁμάρτη Παράκλητον ἔχομεν πρὸς τὸν Πατέρα Ἰησοῦν Χριστὸν δίκαιον.)

4 | 요 14:16.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구원파

기쁜소식선교회, 생명의 말씀선교회, 기독교복음침례회

주요교리 구원파는 죄사함과 거듭남이 자신들의 교회를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으며 이 깨달음으로 구원이 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한번 죄사함을 받으면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으며 반복적으로 회개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것이라 주장한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는 불필요한 것이기에 ‘율법폐지론’을 주장한다. 따라서 이들은 계시론&성경론, 구원론, 하나님론, 그리스도론, 인간론, 교회론 등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에게는 성화론이 없다.

1. 계시론과 성경론

구원파의 핵심은 성경의 ‘깨달음’(골 1:6)에 있다.¹ 만일 깨달음이 없다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며 깨달음의 사건은 날짜까지 기억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깨달음 이외의 행위는 불필요하다고 간주한다. 하지만 이들의 깨달음은 지식적으로 이해되는 것이며, 이는 전형적인 영지주의(靈智主義, Gnosticism)² 세계관에 의한 구원관이다.³ 이처럼 구원파의 이단성은 구원에 대한 관념, 곧 구원관에서 이미 이단사상을 갖고 출발한다. 지식적으로 이해한 것이 깨달음이며 이것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아니다.⁴ 성경은 깨달음이 아닌 믿음이라 하며(요 3:16). 이 믿음은 사람에게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라고 한다(엡 2:8). 이처럼 성경을 바탕으로 하는 정통신학은 반드시 이신칭의(以信稱義)의 구원관을 말하게 된다(롬 3:23~24).

2. 구원론

이들의 구원론은 깨달음에 두기에 행위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른 바 ‘율법폐기론’이다. 또한 율법을 지키라고 주장하는 기성교회에 대해서는 구원이 없다고 비난한다. 하지만 계명에 있어 처음부터 있던 계명(구약)이고 이 계명이 가리키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되며(요일 2:7~8). 예수님은 계명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하게 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신다.(마 5:17). 구원받은 이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다(요 13:34). 또한 율법은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있었고(고전 9:21) 율법이 심판의 기준이었으며(약 2:12) 율법을 범하는 것은 죄가 되었다(요일 3:4). 또한 기성교회의 ‘십일조’에 대해서도 비판한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일조의 준행을 말씀하셨다(마 23:23)

3. 하나님론 & 그리스도론

구원파의 신관은 정통 기독교의 삼위일체론이 아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인간 안으로 들어온 것이라 하는데 이는 성부 고난설(혹은 고난설)⁵과 유사하다. 이단의 양태론(樣態論, Modalism)과 같아서 한 분 하나님이 시대에 따라 각기 다른 모양으로 나타났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① 구원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다.⁶ ② 예수님의 뜻과 성부 하나님의 뜻⁷과 성령님의 뜻⁸은 동일하다. ③ 예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다.⁹ ④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에 성부 성자 성령이 증거되었다.¹⁰ ⑤ 겐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에서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셨다.¹¹

4. 인간론

구원파의 인간론은 인간을 영과 육으로 구분하되 이원론(二元論, dualism)의 관점을 두고 있다. 이것은 대개 정통교회에서 나타내고 있는 인간의 이분설(Dichotomy), 삼분설(Trichotomy)과는 다른 접근이다. 정통교회는 성경의 인간에 대해 영과 혼과 몸의 삼분설 또는 영혼과 몸의 이분설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구분에 관한 것이지 각각 죄와 의가 작용하고 머무는 것으로 말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갈5:17에서 말하는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이 실제 육신(肉身,

body)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인한 영혼의 변화 없이 행해지는 모든 것들을 가리킨다(롬 14:23).

5. 교회론

요15장의 ‘포도나무’를 ‘구원과 교회’라 하여 이곳을 떠나면 영적으로 고갈되어 멸망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요15장은 예수님이 직역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예수=포도나무, 농부=성부 하나님, 가지=인간’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구원은 없다는 뜻이다.

- 1 | 골 1:6.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나도다.
- 2 | 영지주의(靈智主義, Gnosticism, γνωστικός) : ‘지식을 가짐’, 일반적으로 1세기 후반에 유대교와 초기 기독교 종파 사이 시작된 종교적 사상 및 체계를 말하며 이들은 교회의 정통 가르침, 전통, 권위에 대항하는 개인적인 영적 지식을 강조했다. 교회사 최초로 출현한 이단 중 하나이다.
- 3 | 정동섭, 『구원 개념 바로잡기』,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5), 30.
- 4 | *ibid.*, 23.
- 5 | 성부 수난설(聖父受難說, Patripassianism) : 양태론(樣態論)류의 단일신론으로 200~250년경 노에투스, 푸락세아스 등에 의해 주장되었다. 이들은 삼위(三位)를 혼동하여 그리스도의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인성과 신성)이 혼합되어 있음을 부인했다. 노에투스의 주장은 그리스도가 성부로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고난 당하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다.
- 6 | 빌 2:6.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 7 | 요 14:10.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 8 | 고전 2:10.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니라.
- 9 | 요 14:11.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 10 | 마 3:16-17.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 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17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 11 | 마 26:42. 다시 두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안상홍 증인회)

주요교리 사랑한 안상홍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 토요일 안식일을 예배일로 지켜야 하며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영생의 조건이 된다. 교회의 십자가는 우상숭배물이 되며 성탄절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것이 된다. 임박한 종말을 강조한다. 이로써 하나님의 교회에는 하나님론, 계시론, 성경론, 구원론, 종말론의 등에서 문제가 나타난다.

1. 하나님론 & 계시론 & 성경론

안상홍을 하나님이라 주장하는 것은 성경에 계시된 것으로(계 14:1~2) 거문고 음계에 ‘상’이 있고 많은 물소리에서 큰 물 ‘홍(洪)’이 있으므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가 된다는 것이다. 성경의 ‘거문고’는 번역상 하프(harps)의 대체 표기이며 국악음계는 5개나(궁상각치우) 된다. 여자 하나님을 만들기 위한 논리는 이리하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으니 하나님도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고 아담이 아내가 있으니 재림 예수도 아내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육체나 성별이 아닌 영을 말하며(요 4:24) 역으로 남자와 여자 각기 모두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또한 갈 4:26(예루살렘은 곧 우리 어머니)을 인용하여 어머니 하나님의 존재를 주장하지만 이는 인간 장길자가 아닌 아브라함의 두 부인이었던 하갈(율법=지상의 예루살렘)과 사라(복음=하늘의 예루살렘)를 가리키고 있다.

2. 구원론 (안식일, 십계명, 유월절, 교적부, 수건교리)

구원을 이루는 것의 절대조건으로 이들은 토요일 안식일(막 16:2)과 십계명(출 20:10)의 영원한 준수(출 32:16~17)를 주장하며 신약의 예수님(눅 4:16)과 제자들(눅 23:56)의 예를 들고 있다. 하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의 안식일 행위는 안식일을 계명처럼 지키는 것이 아닌 습관에 따른 것이었다. 오히려 초대교인들은 주일에 예배를 드렸다(행 20:7).

유월절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도 예수님의 예를 들어 반드시 지켜야 하고 그로 인해 죄사함이 된다고 주장하지만(렘 31:31, 눅 22:19~20) 여기서 유의할 것이 있다. 행위가 구원의 절대조건이 되지는 않는다.(딤후 3:5) 주님의 성찬은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었고 죄사함은 오직 십자가의 피흘림에 있는 것이다.(마 26:28)

또한 자체적으로 생명책이라는 명부(교적부)를 만들어 명부에 이름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계 21:27) 땅에서 기록되어야 하늘에도 기록된다는 주장이다(마 18:18~19). 하지만 성경은 생명책 이외에 땅의 생명책에 대해 말하지 않으며 이름이 기록되는 기쁨에 대해 예수님은 하늘의 기록에 있음을 말씀하셨다(눅 10:20).

‘수건교리’라는 것으로 예배 때에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자(고전 11:2~5) 창조의 섭리며(고전 11:7~9) 하나님께서 주신 본성이라는 주장이다.(고전 11:13~14) 하지만 수건을 머리에 쓰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 아닌 ‘유전’(전통)이다(고전 11:2). 유전이 명령이라는 논리를 편다면 당연히 입맞춤도 명령이 되어버린다(롬 16:16).

3. 구원론2 (십자가, 성탄절)

하나님의 교회에서 기성교회의 구원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는 십자가 형상과 성탄절에 관한 것이다. 이를 성경과 연결하여 구원이 없다고 하는데 자신들은 십자가 형상이 두지 않고 성탄절을 지키지 않기에 성경에 맞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들은 오히려 성경에 없는 ‘안상홍 성탄 기념예배’라는 것을 지키고 있다.

십자가 형상 : 기성교회에는 구원이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것에 ‘십자가’를 예로 들고 있다. 성경은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 했는데(출 20:4) 여기에 ‘갈린 기둥 십자가’ 형상은 우상이 된다는 주장이다(렘 10:5; 2:27). 하지만 본문의 ‘갈린 기둥’은 십자가가 아닌 ‘종려나무 기둥 같은 우상물’을 말한다. 십자가는 자체 형상물이 아닌 대속을 통한 구원의 상징이며 그 가르침은 하나님의 능력이므로¹ 그리스도인의 자랑이 된다.²

성탄절 : 성탄절에 관하여도 이는 태양신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354년에 지켰다는 기록을 근거로 주장하지만 정통기독교에서 12월 25일을 예수님의 강림일로 정해서 경배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절(節)과 일(日)의 구별을 하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발생하는 오류이다.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에 대하여 ‘강림절’, ‘대림절’ 등으로 나타내는 것은 특정한 날을 지목하는 것이 아닌 이 땅에 오신 것에 그 뜻을 두기 때문이다. 탄신일이라는 표기와 함께 ‘성탄일’이라면 모르겠지만 ‘성탄절’로 표기하는 것은 그 날이 특정되어지는 특별한 날이 아닌 일년 중 하루를 정하여 그 날에 의미를 새기는 기념을 하자는 것이다.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정하여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것이다.

4. 종말론

이들의 포섭활동에는 영국여왕으로부터 상을 받은 것을 자주 언급하고 있다. 기성교회 보다 낮고 모범이 된다는 것을 동시에 말하고자 함이다. 자칭 어머니 하나님이 있는 단체에서 사람(영국여왕)으로부터 상을 받았다고 자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상은 누가 누구에게 주어야 맞는 것일까. 믿는 자에게 있어 상은 하나님께로부터 소망해야 함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3,4}

- 1 | 고전 1:18.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 2 | 갈 6:14.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 3 | 히 11:6.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 4 | 딤후 4:8.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기독교 복음선교회

주요교리 교주 정명석은 통일교 간부로 활동 중 이탈하여 통일교 교리인 '원리강론'과 유사한 '30개론'을 만들어 통일교의 타락론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예수의 부활을 영의 부활로 보며 성경은 모두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다고 말한다. 특히 선악과 사건을 하와와 타락한 천사(뱀)의 성문제라 주장하며 이것으로 인류가 타락했다고 한다. JMS에서는 계시론과 성경론, 그리스도론, 하나님론, 구원론, 종말론 등에서 문제가 나타난다.

1. 계시론 & 성경론 & 구원론 (비유론, 만나, 까마귀, 오병이어)

JMS에서는 성경을 비유와 상징으로 보게 하며 미혹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비유론 : 성경론에 있어 보는 관점을 하나의 해석으로 보게 하는데 신천지의 비유풀이 방식과 유사하다. 비유가 아니면 아무 말씀 않으셨다는 것을 근거로(마 13:34~35) 오직 비유로만 모든 것을 드러내기에 성경의 근본은 비유와 상징이라 주장한다. JMS의 비유론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곧 하나님의 계시가 되어 버린다. 하지만 마 13:34~35은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비유로만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 모든 것(=천국)을 비유로 나타내셨다는 뜻이다.

만나 : 계 2:17의 '감추인 만나'를 자신들의 교리서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단 단체들의 미혹 중 하나이다. 이는 자신들의 교리서를 통해서만 구원을 접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교리서가 감추어져 있어 아무에게나 공개되는 것이 없는

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실제 '계 2:17'의 '만나'는 '말씀'을 말하며 이 만나(=말씀)를 주시는 분은 특정한 사람들이나 단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¹ **까마귀** : 왕상 17장의 까마귀를 비유와 상징으로 해석하므로 성경의 구원관을 왜곡시킨 후 자신들의 교리서 방식으로 성경을 보게 한다. 까마귀는 우상 숭배자들로 이들이 가져다 준 떡과 고기는 우상제물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만일 까마귀가 부정한 동물이라 우상숭배가 된다면(레 11:13~15) 독수리는 무엇이 되는가(사40:31). 성경의 내용을 보면 까마귀는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먹이게 하신 것이다.

오병이어 : 오병이어의 떡과 물고기는 육의 양식이 아닌 영적 양식으로 떡은 생명의 말씀(요 6:48~51) '비유의 말씀'이라는 주장을 한다. 이것은 예수님의 실제 역사를 비유로 왜곡하는 것으로 성경 전체를 오직 비유풀이의 직역으로만 보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의 오류는 다음과 같다. '떡'이 곧 '말씀'만 비유되는 것이 아닌 백성(시 53:4)이나 자신의 몸(창 40:16) 등으로도 다양하게 비유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14장의 떡은 비유가 아닌 실제 떡으로(마 14:17) 남은 떡의 분량까지 나타내고 있다(마 14:20).

2. 그리스도론 (왕벌교리)

예수는 영으로 부활 승천한 이후 다시 영으로 인간에게 이미 재림했다는 주장이다. 이 영이 임한 재림주가 교주가 되게 하려는 것으로 여기에 '왕벌비유'를 접목시킨 것이다. 성경의 '왕벌'이 각 시대의 예비된 구원자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출 17:8~16의 왕벌=사람=모세(출 23:28), 가나안 정복 때의 '왕벌=여호수아'(신 7:20) 같이 시대의 예비된 구원자들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왕벌=모세'의 논리는 시간 순서상 '모세 앞에 모세를 보내는' 괴변이 되어버린다. 또한 '왕벌교리=여왕벌'을 만들어 교주가 여럿을 거느릴 수 있다는 주장을 하지만 실제 성경의 왕벌은 '여왕 벌'이 아닌 '말벌 떼'가 된다. 벌의 구분에 있어서도 '왕벌=암컷, 일벌=암컷, 숫벌=왕벌과 교미 후 죽음'이다. 따라서 왕벌과 일벌은 결코 애인관계가 될 수 없다.

3. 종말론 (재림, 심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 두 가지 주장을 한다. 첫째는 재림에 있어 주께서 영으로 부활하여 승천한 것으로 다시 영으로 재림하시되 재림주(=인간)에게 들어가신다는 것이다. 둘째는 ‘사 46:11’ ‘동방의 독수리’가 ‘한국의 정명석’이며 구름(=성도)을 타고 오시는 것은 비유로서 성도들 가운데 있는 것이기에 이미 재림주로 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님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이었고² 재림에 있어 구름을 탄다는 것 역시 비유가 아닌 하늘로부터 오신다는 것을 말한다.³ 그리고 ‘사 46장’의 동방은 ‘바사(페르시아)’를 가리키며 ‘독수리’는 ‘고레스’를 말한다.⁴ 또한 이 예언은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이 아닌 바벨론의 멸망으로 이미 성취된 예언이다.

심판에 관하여 JMS는 ‘부분심판’ 주장을 한다. 노아 홍수 사건은 지구 전체가 물에 잠긴 것이 아닌 부분침수이라는 주장인데 이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부분심판이며 자신 역시 부분 심판자로 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성경의 홍수 사건은 전체에 해당하였고⁵ 하나님의 심판은 전체였고^{6,7} 마지막 심판 또한 전체가 됨을 나타낸다(롬 4:5).

- 1 | 계 2:17.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 2 | 눅 24:39.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 3 | 행 1:11.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이여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 4 | 사 45:1~3.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2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늦문을 쳐서 부수며 쇠빛장을 꺾고 3네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네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 5 | 창 6:17.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 6 | 눅 17:27.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 7 | 뱀전 3: 20.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여덟 명이라.

여호와의 증인

주요교리 하나님론에 있어 예수를 피조물로 보며 삼위일체를 부정한다. 종말론에 있어 여호와의 증인들만이 부활하여 지상낙원을 통치한다고 주장하며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사라지는 ‘영혼멸절설’을 믿으며 지옥을 부정한다. 이로써 여호와의 증인 교리에는 그리스도론, 하나님론, 구원론, 종말론 등에서 분명한 문제가 드러난다.

1. 그리스도론

예수님을 천사 미가엘이라 하여 주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한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과 동등된 분’(빌 2:6~8),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골 1:15), ‘크신 하나님이 되심’(딤후 2:13), ‘만물 위에 계셔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롬 9:5), ‘이제도 전에도 그리고 장차 오실 하나님이 되신다’(계 1:8)고 기록하고 있다.

2. 하나님론(삼위일체, 예수, 성령)

삼위일체론 : 이들은 삼위일체(三位一體)라는 말이 성경에 없으므로 이를 부정하고 있다. 또한 예수님에 대하여는 주님도 모르는 일(재림의 날짜), 권한 밖의 일(마 20:23)이라는 것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한다. 하지만 성경에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고(요 5:18) 천사가 경배하였으며(히 1:6) 동방박사들도 경배하였고(마 2:2) 제자들도 경배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다(마 28:17). 성령에 관하여는 명칭의 원어 구약-‘루아흐(רוח)’, 신약-‘프뉴마’(πνεῦμα)가 비인격에 사용되었으므로 성령이 비인격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단어는 인격에도 사용되고 있다. 성령의 생각(고전 2:10), 성령의 탄식과 간구(롬 8:26), 성령의 근심(엡 4:30) 등이 그러하다.

3. 구원론(음식, 수혈, 병역거부)

음식(피) 금지 : 피를 먹지 말라는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구약에서 금한 음식은 피를 포함하여 기름과 부정한 식물(레 3:17~18)도 있었다. 이러한 주장의 오류는 이러하다. 제사제도는 구약으로 끝난 것으로(히 10:4) 피를 멀리하는 것은 구원문제가 아닌 교회법의 문제였다(행 15:19~20). 음식물 문제는 구원과 상관될 수 없는데(롬 14:2, 고전 8:8) 오히려 이단들이 음식물로 문제 삼을 것이라 했다(딤후 4:1~4).

수혈금지 : 수혈을 금하는 있는 것은 피를 먹지 말라는 것(창 9:3, 행 15:20)의 확대해석의 결과물이다. 수혈이 수액방식과 같아서 영양분 공급의 하나로 본 것이다. 하지만 수혈은 영양공급의 차원이 아닌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생명 사랑 실천이다. 수혈의 의미로 보면 인생의 구원에 있어서도 ‘예수의 피’로 인한 죄사함을 말하고 있다.¹ 음식의 섭취와 생명을 위한 구조의 행위는 분명 다른 것이다.²

병역거부 : 여호와의 증인 병역거부는 이 세상의 정부가 사단의 권세를 받았다는 것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단 7:1~18). 하지만 성경에서는 권세들에 대해 굴복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다. 여기서 굴복이란 정치 제도, 법 제도에 관한 공존의 영역이며 이러한 것에 하나님의 관여가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롬 13:1~2, 딤후 2:1~2). 국방의 의무는 법제도의 일환이므로 병역거부에 대하여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은 적절치가 않다. 이는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이들의 양심이 문제가 있는 표현이기 때문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들의 ‘병역거부’는 ‘종교 교리에 따른 병역거부’가 맞는 표현이다. 성경에서의 병역 징집을 보면 구약은 공의로움에 있고(출 12:4, 수 10:14), 신약은 기쁨과 좋음에 두고 있다(딤후 2:4, 딤후 2:3). 아브라함은 자체 용병제를 실시하였고³ 하

나눔은 기드온을 통해 군인 지원제를(삿 6:34~35) 거쳐 선발제를 실시하였으며(삿 7:1~8) 전쟁을 치러 승리케 하셨다(삿 7:9~25).

4. 종말론

개인적 종말론 : 이들은 지옥과 영혼을 부정한다. 지옥은 멸망의 상징으로 사랑의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요일 4:8).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천국 지옥도 상징으로 본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과 함께 공의로우시다(살후 1:5~9). 영혼은 멸절되는 것이 아닌 영원하며 반드시 지옥(마 25:41, 계 21:8) 또는 천국으로 가게 된다(마 25:46).

우주적 종말론 : 이들은 예수의 재림이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 주장한다. ‘연 일계산법’이라는 것을 적용하여 단 4장의 일곱 때(단 4:16)를 ‘1일=1년’으로 계산, 2520년을 만든 후 시드기야 왕의 폐위(B.C 607년)에 대입하여 B.C607+2520년=1914년에 이미 예수님은 영으로 재림하였고 하늘 왕국이 시작됐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성경의 예언은 ‘1일=1년’ 해석적용이 아니며 일곱때 예언은 느부갓네살에게 해당되는 것일 뿐이다(단 4:32~34). 예수의 재림과는 상관이 없다. 재림의 날짜는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셨다(마 24:36). 또한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사람이 보게 되는 것이며(계 1:7) 동시에 성도의 부활과 공중의 영접이 있게 될 것이라 하였다(살전 4:16~17).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관하여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제 임하는 ‘지상낙원’을 주장한다(계 21:1~2, 사 46:9~11). 하지만 성경은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심령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며(눅 17:21)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요 18:36). 여기에 새 하늘과 새 땅은 주님의 재림 때 부활의 몸, 신령한 몸으로 들어가는 곳이라 하였다(고전 15:51~52, 살전 4:16~17).

- 1 | 벤전 1:18~19.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 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19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 2 | 마 12:11.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 3 | 창 14:14~16.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삼백십팔 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15과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원편 호바까지 쫓아가 16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안식교)

주요교리 윌리엄 밀러는 1843년과 1844년, 두 차례에 걸쳐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언했지만 실패했다. 이후 엘렌G. 화이트(Ellen Gould White, 1827.11.26.~1915.7.16. 女)를 선지자로 부르며 그녀가 받은 계시를 성경의 권위에 견줄 만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십계명의 넷째 계명인 안식일(토요일) 준수를 구원의 조건으로 말하며, 영혼에 있어서는 죽음 이후 없�지는 ‘영원멸절설’을 주장한다. 따라서 안식교의 교리는 계시론 & 성경론, 구원론, 종말론 등에서 문제가 드러난다.

1. 계시론 & 성경론(하늘성소입성, 조사심판)

안식교는 창교자 엘렌G. 화이트를 말세의 마지막 선지자로 믿고 있다. 그녀의 주장에 따라 성경에도 없는 ‘예수님의 하늘성소 입성’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데 구체적인 날짜까지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이들이 앞서 예수님의 재림을 1843년과 1844년에 각기 예언하였지만 실패한 것에 다른 것으로 합리화를 찾으며 고안해낸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고 그것이 곧 하늘성소에 입성한 것이라는 주장이다(히 8:1-2). 이들의 계산법은 이러하다. 민14:34의 “1일=1년”을 근거로 예루살렘 증건(B.C457)에 성소의 정결(단 8:14) 2300일(=년)을 더한 것이다. 이것으로 B.C.457년+2300년=1844년을 만들어 이때가 예수님의 재림, 곧 하늘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것이다. 성소에 들어간 것은 성소를 정결하게 하기 위함인데 이 성소의 정결은 곧 예수님이 성

도의 품성과 행위를 조사한다고 하여 말하는 것이 이른 바 ‘조사심판’ 교리이다.

안식교의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 성경의 내용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날짜 계산법에 관하여 성경에는 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모든 날짜의 계산을 ‘1일=1년’으로 해야 한다는 획일적 날짜 계산법이 언급되고 있지 않다. ‘1일=1년’은 단지 민14:34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다.

둘째, 하늘성소 입성이라는 예수님의 재림설은 단지 이들의 상상과 허구일 뿐이다. 예수님은 승천 즉시 하늘성소에 들어가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히 6:20). 이것은 인간의 구원을 위한 구속의 사역에 있어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것을 말해준다.(롬 6:10, 요 19:30)

셋째, 이들이 말하는 ‘조사심판’ 교리는 승천 후 예수님의 사역을 전혀 다르게 인식하게 하는 위험이 크다. 성도의 품성과 행위를 조사한다는 주장은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을 주장하는 것과 같은데 구원의 조건은 믿음이며 그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요 3:16) 더욱이 예수님의 승천은 적어도 세 가지의 소망을 두게 하였다. ① 예수님의 승천은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함이었다.(요16:7), ② 예수님의 승천은 믿는 이들을 위한 중보기도의 약속을 말씀해 주셨다(롬8:34), ③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가 장차 가야할 천국에서의 처소를 예비해주시는 약속이 있었다(요 14:2~3). 그러므로 예수님의 승천은 믿는 이의 소망으로 남게 된다.

넷째,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는 누구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이를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아신다고 하셨다(마 24:36). 한 세대가 가기 전 오시겠다는(재림) 주님의 약속이 늦어지는 것은 약속의 반복이 아닌 인생이 회개하여 멸망에 이르지 않기를 오래도록 참으시는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다(벧후 3:9)

다섯째, 예수님께서 하늘성소에 입성하시므로 이것이 곧 재림이 되었다는 주장은 예수님의 재림 현상을 언급하고 있는 성경의 내용과도 맞지 않는다. 예수님의 재림 때는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게 될 것이라 하였고 심지어 예수님

을 찌른 자들(십자가 사건) 조차 이를 보게 될 것이라 하였기 때문이다.¹ 그럼에도 재림에 관하여 어느 한 사람이 이를 보았고 언급한다는 것은 성경의 내용과 맞지 않게 된다.

이처럼 안식교의 계시론&성경론은 성경의 내용과 전혀 맞지 않는다. 무엇보다 창교자였던 엘린G. 화이트의 예언과 저서들은 대부분 거짓과 표절로 밝혀졌는데 이는 전 재림교회 목사 월터 레이(Walter Rea)가 LA Times(Los Angeles Times, 1980.)에 화이트의 거짓말(The White Lie)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한 바 있다.

참고로 엘린G. 화이트를 선지자로 말하지만 선지자에 관한 성경 속 예수님의 말씀은 이러하다. 선지자의 마지막은 세례 요한이다.²

2. 구원론(안식일 준수, 육식금지)

안식교의 구원론에는 이들이 지켜야하는 율법의 규칙이 중심되고 있다. 첫째는 이들의 이름처럼 '안식일'의 준수이며 둘째는 레11장의 부정한 음식의 금지에 있다. 이에 대한 이들의 주장과 성경의 실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안식일 준수 : 안식일을 지켰다는 기록에 대해 예수님과 바울, 사도들의 기록을 근거하여 주장하고 있다. 안식일은 예수님도 지켰고(눅 4:16) 바울도 지켰으며(행 17:2) 사도들도 그랬다는 것이다(행 16:13). 하지만 이 본문들의 공통점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함이 아닌 '규례대로, 관례대로' 행한 관습의 하나였다. 예를 들어 사도들이 안식일에 강가의 기도처를 찾아간 것도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간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간 것으로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이다.

또한 안식교는 안식일 준수에 있어 이 날을 초대교회에서도 지켰으나 AD 321년 콘스탄틴 칙령으로 예배일이 현재의 주일(일요일)로 바뀌었다는 주장을 한다. 하지만 이에 관하여는 콘스탄틴 이전에도 주일예배가 드려졌다는 사실인데 무엇보다 콘스탄틴 칙령은 안식일 변경의 칙령이 아닌 교회의 예

배일에 대한 공휴일 제도를 정해 예배를 돕기 위한 조치였다. 또한 초대교회의 예배는 자발적인 부활의 기념일로 주일에배로 드렸으며 이는 사도행전 1~2장에 나타난다.

육식금지 : 안식교는 레11장을 근거로 부정하고 가증한 모든 음식물을 금하며 만일 섭취할 경우 계시록의 일곱 재앙을 받을 것이라 주장하며, 육식을 금하고 채식을 강조한다. 하지만 이러한 규례는 십자가의 구속으로 폐하여졌고 모세 율법 이전의 규례도 그러한 것이다(골 2:16~17³, 롬 14:14⁴). 베드로의 환상도 이를 증거 해 주고 있다(행 10:9~22).⁵

3. 종말론

안식교는 구원은 2단계로 되어 있다. 지상에서는 1차 ‘믿음으로 얻은 구원’이며, 2차 재림 때 받는 ‘행위로 얻은 구원’이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구원에 있어 성경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 하였다(갈 2:16⁶, 롬 3:20⁷). 만일 율법의 행위로 구원이 된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헛것이 되기 때문이다(갈 2:21).⁸ 구원은 오직 주님으로 인함이며(요 14:6)⁹ 그 주님을 믿는 것에 있다(요 3:16).¹⁰

- 1 | 계 1:7.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 2 | 요 11:13.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 3 | 골 2:16~17.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17이 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 4 | 롬 14:14.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 5 | 행 10:13~15.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14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 대 15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 6 | 갈 2:16.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 7 | 롬 3:20.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 8 | 갈 2:21.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 9 | 요 14:6.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 10 | 요 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부모님교단 (통일교)

주요교리 문선명이 저술한 '원리강론'(성약)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참 성경이라 믿는다. 인간의 타락을 뱀(사탄)과의 성문제로 해석하여 피가름 의식을 내세우며 지상천국이 한국에 건설된다고 주장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실패자로 간주하고, 재림예수가 그 사명을 완성할 것이며 문선명이 그 재림예수이자 메시아라 주장한다. 하지만 2012년 문선명이 죽은 이후 한학자를 참 어머니님으로 신격화하게 되는 가운데 그의 아들 문형진이 후계자로 자처하고 있다. 하늘부모님교단(통일교)의 교리는 이와 같이 계시론&성경론, 하나님론, 인간론, 그리스도론, 구원론, 종말론 등에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1. 계시론 & 성경론

'원리강론'(성약)의 등장으로 성경보다 이것을 믿어야 하며 만일 이것을 믿지 않으면 말세에 실족하게 될 것이라 주장한다. 성경에 대한 증빙은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영원한 것으로서(사 40:8¹, 마 24:35²) 구원에 이르게 하므로(답후 3:15)³ 가감해서는 안 되며(신 4:2)⁴ 어길시 재앙이나 제함이 있다 하였다(계 22:18).⁵

2. 하나님론

하늘부모님 교단의 하나님론은 무형의 하나님을 주장하며 하나님에 대해 성상(性相=마음, 남성격)과 피조세계(여성격)로서의 형상(形相)이라 한다(롬 1:20).

하지만 성경에서 자연계를 통한 하나님의 나타내심은 하나님 자체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다. 만일 자연계 자체를 하나님으로 여긴다면 자연계 자체가 경배의 대상이 되어버린다. 이는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피조물(느 9:6)⁶ 하나님이 되는 것과 같은 오류이다.

또한 하늘 부모님 교단은 하나님이 남성격·여성격을 모두 갖췄으므로 하나님이 아닌 ‘하늘 부모’로 불려야 하며 이 가운데 여성격 메시야로 지상에 오신 분이 참 어머니이자 ‘독생녀’, 현재의 교주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성경에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 있을 뿐(요 1:14) 하나님께서 다른 구원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행 4:12).

3. 인간론

하늘 부모님 교단의 인간론에 관하여 인간의 죽음이 아담과 하와의 원죄에 있지 않고 죽음 자체가 창조의 원리에 있다고 주장하여 인간의 죽음을 죄와 상관 없이 본다. 이에 대하여 성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죄인의 시작은 에덴의 불순종으로(롬 5:19)⁷ 그 결과로서 사망이 온 것이다(롬 6:16⁸, 23⁹). 그러므로 죽음은 죄의 결과이며 영생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요 3:16).

4. 그리스도론

하늘부모님 교단의 그리스도론은 ‘영육 탕감 복귀설’을 내세워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사건이 완전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십자가의 구속이 영적 구원에만 해당할 뿐 육적 구원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성경에서의 십자가 구속은 ‘믿는 이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한 것’이라 하여(히 10:4) 육을 제외한 구원이라 말하지 않는다.

5. 구원론

하늘부모님 교단은 에덴동산의 선악과 사건을 하와와 사탄의 음행사건으로 풀이하고 있다. 사탄 혈통이 전해지므로 이후 하와와 아담 사이에서 태어난 인

류는 사탄이 자식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성경에서 선악과나무와 하와, 사탄은 각각의 매개체로 선악과 범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라 말하고 있다(창 3:11).

또한 이들의 합동결혼식은 에덴동산에서의 범죄 전 가정으로 돌아간다는 복귀예식으로 이것은 곧 창조본연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함이라 주장한다. 여기에 하나님과 인간 각각의 책임분담율이 95:5로 배분된다고 한다. 하지만 성경에서 인간의 회복을 말할 때 범죄 전 아담의 상태로 돌아간다고 하지 않았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성령이 이 사실을 증거해 준다고 하였다(롬 8:16, 고전 12:3). 구원에 인간 행위로 인한 공로는 전혀 없다(롬 3:20, 갈 2:16). 구원의 공로는 오직 주님 밖에 없다(고전 3:11).

6. 종말론

하늘부모님 교단은 시대를 구분하면서 3수(數) 말세라 하여 노아의 때, 예수의 때, 그리고 지금의 때를 주장한다. 지금의 때는 재림주가 육신을 통해 지상에서 출생하는데 ‘동방의 해 돋는 나라’(계 7:2) ‘한국’이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의 재림 묘사는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오시고(행 1:11) 누구나 목격하게 되며(계 1:7) 그날과 그때는 성부 하나님 외에 누구도 모른다고 했다(마 24:36). 재림에 있어 때와 장소가 언급되고 있지 않다.

- 11 사 40:8.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 21 마 24:35.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 31 딤후 3:15.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 41 신 4:2.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 51 계 22:18.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 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19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 61 느 9:6.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 71 롬 5:19.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 81 롬 6:16.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 91 롬 6:23.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 101 요 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몰몬교)

주요교리 몰몬교는 성경, 몰몬경, 교리와 선약, 값진 진주의 4개의 경전을 신성시하며 살아있는 예언자의 말씀도 같은 권위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또한 몰몬교회만이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주장하며 모든 인간은 하늘 부모에게서 받은 영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다고 주장한다. 또한 인간 타락으로 창조계획이 성취되지 못하였고, 회복을 위해서는 지상천국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몰몬교의 신학적 문제는 계시론&성경론, 하나님론, 인간론, 종말론 등에서 발견된다.

1. 계시론 & 성경론

몰몬교는 사도시대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상실되었기에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선견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본 환상과 계시인 ‘몰몬경’을 통해서만 복음이 회복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이들은 몰몬경에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부여하고 있다. 심지어 몰몬교 선교사들은 성경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기도 한다. 이는 성경의 오래된 기록에 관한 것으로 처음 기록된 이후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자신들의 몰몬경은 기록 이후의 기간이 짧으므로 변화(변질)의 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신권’, 곧 구원에 관한 지식을 다루는 두 계층(소신권, 대신권이 있어서 상위신권(대신권)인 멜기세덱 신권을 조셉 스미스가 회복하므로 이것이 자신들의 ‘회장’과 ‘12사도 정원회’에 의해 계승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성경에는 이

들이 말한 신권과 그에 따른 계층이 전혀 없다. 믿는 이들이 받게 되는 유업은 신권이 아닌 오직 하나님 나라이다(고전 6:9~10).¹ 선견자에 관하여도 성경은 마지막 선지자는 요한이다(눅 16:16). 다른 복음은 없다(갈 1:7).²

2. 하나님론

몰몬교는 하나님의 변모를 말하며 하나님의 완전함이란 영원한 진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변역지 않으시고(말 3:6)³ 변함이 없으시며(약 1:17)⁴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다(히 13:8).⁵

3. 인간론(인간의 기원)

몰몬교의 인간론은 다음과 같다. 모든 사람은 부모에게서 태어나기 전 하늘의 부모에게서 영으로 이미 태어난다는 것이다. 하지만 성경에는 하늘 부모의 영으로 이미 태어난다는 얘기가 없다. 하나님의 인간 조성 시작은 모태이며(사 44:2⁶, 24⁷; 시 139:13⁸) 계획은 만세전부터였음을 나타내고 있다(잠 8:23).⁹

4. 구원론

몰몬교의 구원에는 8세 이하의 아이에 대해 이들은 무조건 구원받는다라는 주장을 한다. 그러기에 8세 이하의 아이는 각종 의식에 참여하지 않는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나이에 제한을 말하지 않는다. 구원의 조건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 다른 어떠한 인간의 환경이 조건(신체 나이 등)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며(롬 10:13) 믿는 것에 있는 것으로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 된다(요 3:16).

몰몬교는 구원을 받기 위해 침례의식이 절대조건이 되므로 죽은 조상이라도 생존해있는 친척들이라도 대신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성경에서 인생의 구원에 관하여는 어떠한 의식도 조건이 될 수 없는 것으로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두고 있다. 또한 인생의 구원은 살아생전에 두고 있다(시 78:39).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며 그 후 심판이 있게 된다(히 9:27).

물몬교는 완전한 구원이라는 것이 지식과 진리와 의로움과 모든 참된 원리들에 의해 달성되는 것이라 한다. 그래서 많은 조건들이 선행되어야 하니 물몬교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단체나 지식, 직분, 기타 여하의 조건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며 (롬 3:23~24) 이것이 정통적 기독교의 구원론이다.

- 1 | 고전 6:9.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10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 2 | 갈 1:7.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만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 3 | 말 3:6. 나 여호와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이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 4 | 약 1:17.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 5 | 히 13:8.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 6 | 사 44:2.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 낸 너를 도와 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룬아 두려워하지 말라.
- 7 | 사 44:24. 네 구속자요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찢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 8 | 시 139:13.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 9 | 잠 8:23.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다락방)

주요교리 인간의 타락이 마귀에 의해 발생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마귀를 멸하기 위해 오셨다고 한다. 그래서 다락방은 전도를 통해 이 사실을 세상에 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마귀가 멸해지는 것이 영적, 우상, 정신, 질병, 내세, 종교 문제 등을 해결하는 열쇠라는 것이다. 다락방의 교리는 모든 문제를 마귀와 연결하므로 인생의 생사화복이 마귀로 인해 조절 되는 것처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다락방 교리의 문제는 계시론 & 성경론, 하나님론, 그리스도론, 구원론 등에서 나타난다.

1. 계시론 & 성경론

‘다락방은 요일 3:8’을 중요시 여기는데, 이를 근거로 ‘주님이 오신 목적’이 ‘마귀의 일’, ‘마귀를 멸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또한 마귀의 일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포함한다고 한다. 하지만 성경에서 마귀의 일은 인간이 구원받는 것을 훼방하는 것에 있으므로, 믿는 자들의 고난 조차 마귀의 일로 볼 수는 없다. 고난을 통해 말씀을 배우고(시 119:71) 환난을 통해 소망을 알아가기 때문이다(롬 5:3).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인생의 구원을 이루기 위함이므로(요 3:16) 예수님의 구원은 마귀의 일이 되는 죄에서의 구원이지만(마 1:21) 마귀 자체를 멸하는 것은 아니다.

2. 하나님론(계시의 영)

다락방은 계시는 하나님뿐 아니라 마귀도 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성경에서 나타나는 계시는 구원을 위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는 것으로(롬 16:25~27), 마귀는 욕심, 살인, 거짓, 교만으로 나타나기에 이것들을 계시로 여길 수 없다(요 8:44). 계시의 영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엡 1:17).

3. 그리스도론

다락방은 예수님의 대속(代贖)을 마치 마귀에게 값으로 지불하는 것으로 해석하므로 사탄에게 배상한다는 ‘사탄배상설’을 주장한다. 하지만 성경에서 주님의 십자가 대속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마 26:39) 사탄은 결박의 대상이 된다(요일 3:8, 눅 10:19²).

또한 다락방은 십자가의 고난이 사단에게 값을 치른 것이기에 인생의 실패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성경에서 주님의 십자가는 은혜에 따른 구속(엡 1:7)과 칭의(롬 3:24)로 성부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엡 2:16).

4. 구원론(구원의 정의, 예수의 재영접, 조상의 죄, 사단과 천사에 대한 권한)

다락방은 구원을 ‘죄에게서 해방되는 것’이라 한다. 하지만 성경에서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멸망에서 벗어나 영생으로 가는 것을 말하고 있다(요 3:16).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확증된 것이다.(롬 5:8)

다락방은 ‘예수의 재영접’ 주장하여 구원받은 자가 다시 예수를 영접해야 큰 축복을 받는다고 한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구원은 재영접을 말하지 않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되 더 나은 믿음으로 향하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말하게 된다(엡 4:13).

다락방의 죄 분류는 원죄, 자범죄와 함께 ‘조상의 죄’를 포함해 조상들의 죄가 유전되는 ‘가계 저주론’을 주장한다. 그러나 성경은 죄의 유전을 말하지 않고 각

자에게 책임을 묻게 됨을 말한다(렘 31:29~30).

다락방의 기도에 대해 ‘사단결박권과 천사동원권’으로까지 말하지만 성경에서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은혜의 수단으로서 역사는 주님께 있다는 것(계 20:2)과 천사 동원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나타나고 있다(시 91:11, 행 27:23~24)

5. 종말론

다락방은 ‘사 6:13’³을 인용해 렘넌트(Remnant, 남은 자) 사상을 주장한다. 이것은 자신들이 ‘마지막 시대의 남은 자’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성경의 ‘남은 자’는 특정단체가 아닌 오직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킨다(롬 9:27~29)’⁴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 (전능신교=동방번개파)

주요교리 전능신교는 지상의 모든 교회를 정복해 전능신교로 돌아오게 하며 온 세계가 전능신교를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들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며 자신들의 경전만을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삼위일체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며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불완전한 것으로 여긴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여성의 몸으로 이미 중국 땅에 임하였다고 주장한다.

이로써 전능신교의 교리는 계시론&성경론, 하나님론, 그리스도론, 종말론 등에서 문제가 타난다.

1. 계시론 & 성경론(성경, 시대, 구원의 이름)

전능신교는 성경을 폄훼하면서 성경에서 벗어나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경에 대한 성경 자체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고, 이를 통해 구원에 이르게 된다(딤후3:15~17)고 하였다.'

전능신교는 '구약(율법) - 신약(은혜) - 국도'의 세 개 시대로 구별하여 하나님이 각기 나타나시는데 구약은 '영'으로 신약은 '남자'로 국도는 '여자'로 오시며, 국도에 여자로 오신 이의 이름이 '양형빈'이라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양태론'일 뿐이다. 무엇보다 성경의 구약은 오실 구원자 예수님을 말하며(눅 24:22)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사역을 다 이루셨으며(요 19:30) 구원에 있어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은 없다(행 4:12).

2. 그리스도론(재림)

전능신교는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였고 오늘날까지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으며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은 비유로 영으로, 말씀으로, 성품으로 임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성경에서 예수님의 재림 때의 상황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고(살전 4:16), 거짓 그리스도가 폐하여지며(살후 2:8) 모든 사람들이 볼 것이라 하였다.(마 24:30) 그래서 이들의 주장은 맞지 않다.

전능신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가 창조되었기에 말씀으로 된 육신도 남자와 여자로 구분되어 초림 때에 남자로 오셨기에 재림 때는 여자로 오신다는 ‘여자 그리스도의 재림’을 주장한다. 하지만 성경에서의 예수님 재림은 구름타고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하였다(행 1:11).

3. 종말론

전능신교는 성경의 ‘동방’이 중국으로 예수님의 재림은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마지막 사역 또한 중국에서 이루어지기에 중국인이 전 인류를 대표할 것이라 주장한다. 이와 같은 사상은 ‘선민백성’으로 이제 선민이 이스라엘에서 중국대륙으로 옮겨졌다는 것이며, 그리스도는 중화대륙에 성육신하였는데 말씀이 육신에서 나타났으므로 두 번째 성육신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한다. 전능신교는 성육신에 대해 초림으로 구약의 예언이며(사 9:6) 재림은 강림으로 오시기에(계 1:7) 그리스도가 재림하여 다스리는 나라(국도)이며 마지막 때에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미 이루어졌고 또한 세워져가고 있으며 ‘양향빈’이 왕으로, 신도들은 국도에서 ‘만국을 다스린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이들의 주장에 성경의 내용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성경의 동방 예언은 이미 이루어졌고(B.C 538) 장소는 이스라엘의 동쪽, 곧 ‘바사’이며 인물은 ‘고레스’였다(사 44:28). 선민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인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후 신약에 이르러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구별이 아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선민이 되게 하셨다(엡 2:19). 그리고 주님의 성육신은 구속사를 위해 오신 것으로 구속사역은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셨다(요 19:30). 재림 때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지금의 지상은 지나

가며(계 21:1) 몸 역시 부활의 상태가 된다(고전 15:52~54)고 하였다.

11 답후 3:15.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